

국내 육계 산업 실태 및 발전 방향

전승기* · 장경만¹

한경대학교 대학원 · 한경대학교 동물생명자원학과¹

Abstract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broiler farmers and analysed in this study to find out ways to respond to the open international chicken trades—chicken marketing plan and market price control. Broiler farm production and management were analyzed and it was found that number of chicken produced per farm was related to systematic and strategic level of farming such as chicken housing, technical problems, and cost of production.

(Key words : broiler industry, farm management & economics, strategic development)

서 론

현재 우리 나라의 육계경영은 과도기 국면에 있다. UR·WTO 합의에 의하여 1997년 7월 이후 닭고기, 돼지고기, 소 부산물이 수입자유화 되었고 이어 2001년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을 하였으며 관세 또한 점차적으로 낮추게 되어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육계산업의 실태를 생산 및 유통단계에 따라 검토·분석하고 육계계열화 사업의 생산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사육농가의 소득 향상 및 유통단계 축소 등 구조 개선으로 비용절감과 양질의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이상과 같은 과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육계의 경영 경제에 대한 문헌 및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의 통계자료에 육계경영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에 가까운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집계처리를 하였다. 규모 확대에 따른 계사구조의 진전과 신기술에 의한 기술혁신의 전개에 대하여 규모, 계사구조, 생산성 및 경영적성과를 규모별로 유형화하는데 있다. 그리고 수수규모별 경영구조와 경영전략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 (1) 경영과 경영주의 성격 : 경영주의 육계생산 종사연수는 평균 10.3년으로 10년 단위로 구분 하였을 때 「10년 미만」 27명, 「20년 미만」 12명, 「20년 이상」 1명, 계 40명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경영자가 10년 미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규모(연간 출하수수)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10만~20만수 미만의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8년으로 2.3년 정도 종사연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9.7세로 40대 후반의 경영자가 많았다. 사육규모가 작은 경영에서 연령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규모가 클수록 연령이

낮아지지는 않았다.

- (2) 노동력 구성과 노동조건 : 연간 출하수수별 노동력의 구성을 보면,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력의 비중은 없었으며 이것은 자동화로 전환된 결과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출하시거나 계분처리 작업시 임시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력 노동력은 가족노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3) 사육규모별 계사구조 : 계사구조는 완전계사, 임시계사의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하며, 그 중 완전계사의 비율이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계사 타입별로 작업체계를 보면 급이, 급수, 환기 시설과 같은 기본 시설과 자동화 정도에 차이가 있다. 급수 시설은 니플, 푸라솔과 같은 자동급수시설의 보급률이 계사타입별로 100%로 나타났다. 환기시설은 강제환기의 보급률이 계사타입에 관계없이 자연환기와 강제환기를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4) 생산기술 : 기술수준에 대해서는 항목을 정하여 계산치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계하였다. 사료요구율 1.8~2.0대 농가가 55%의 집중도를 나타냈으며 출하체중 1.6kg이하가 87.5%로 출하체중은 여전히 소형 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일령은 35일이하가 전체의 55%이며 육성율은 94~96%대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열농가 또는 일반농가에서의 생산기술 격차는 크지 않았으며, 사료요구율과 출하체중에 따른 보너스, 페널티 방식의 위탁사육 방법 등 사육기술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규모를 확대하여 가는 추세로 볼 수 있다.
- (5) 경영관리 : 작업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농장에 대하여 위생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위생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농장은 극히 일 부문에 지나지 않았다. 경영관리에 대하여는 단순히 금전의 출납을 기록하는 단식부기를 경영자 자신이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식부기를 실시하는 농장은 전무한 상태였다. 경영지도는 계열주체, 동물약품 관련 회사, 계약사료회사 순으로 나타났다. 사육일지는 계열주체나 사료회사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록과 기장을 통한 경영 개선, 진단 등이 현실적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 (6) 생산비와 수익성 : 생산비의 구성비목별 내역은 40농장 중 25농장으로부터 회답이 있었다. 대부분의 농장이 계열주체와의 계약사육농가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생산지수는 높을수록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농가평균 227을 나타내고 있다.

적 요

WTO 체제하에서 육계경영의 장래가 지극히 불투명하고 우려하는 가운데 금후의 경영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소규모, 중규모가 많았으며 대규모경영은 현상유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투자 계획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계분 처리시설 확충」 「자동화 설비」 「완전계사」 외에 규모확대를 위한 계사확장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발전기, 단열시설, 환풍기보강, 온도센서 등 계사 내부시설을 강화하려고 하는 농장이 많았다. 신기술의 도입 계획 중에서 열거해보면 자가발효사료 생산이용을 고려 중, 깔짚의 재활용, 생산비 절감 기법 도입, 무창계사, 계사의 위생관리기술 등 각 농장의 경영자 자신의 과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참고문헌

- 김강식 1997 한국육류 수출 가능성과 대책. 한국육류수출입협회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1996 닭고기 대일 수출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 한국가금학회 2000 계육의 해외 수출전략. 2000한국가금학회 추계 산학협동 심포지움
- Arai 1984 장기 평균 지불제도의 경영관리기능과 변질. 농업경영연구. 제23권. 3호.
-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88 양계의 상업계 인테그레이션 실태조사연구보고서.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 장경만 2001 일본 양계산업의 현황 및 전망(II) -육계편. 현대양계 3월호